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ttitudes and the Perceptions Toward a Single Life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전공

교수 박충선**

Division of Social Welfare, Family Welfare Major, Daegu Univ.

Prof. : Park, Chung-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ttitudes and the perceptions toward a single lif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ale and female singles. In this study, a total of 160 singles aged 30 to 39 were interviewed using a questionnaire on socio-economic status,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a single life, and life satisfa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and chi-squ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ocio-economic status of singles are higher than that of the married ones, showing a high level of income, education, and jobs. The 54.4% of the respondents showed that they remained as singles, because they have not met desirable partners yet, and the 20.9% answer that the main reasons for being a single are working and studying. The attitudes and the perceptions toward a single life were measured in six areas; freedom, self-achievement, self-development, institutional pressure, anxiety of support systems, and sex discrimination toward singles. The freedom of a single life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education and income. The self-achievement, self-development, and the level of anxiety about support systems were shown to be related to the sex of singles, indicating that single women got more benefits than single men. Single men experienced more institutional pressures such as marriage pressures and filial piety than single wome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acceptance to live as a single in terms of sex. Finally, life satisfaction with a single life turned to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sex, age, education, and income.

▲ 주요어(key words) : 독신(single), 독신가구(single household), 독신생활 인식도(perceptions toward a single life), 독신생활만족도(satisfaction with a single life)

1. 들어가는 말

과거 토지를 중심으로 하였던 농경사회, 그리고 자본 중심적인 산업사회로부터 점차적으로 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사회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어 융통성이 생기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가족의 세부 기능이 확대 혹은 축소됨에 따라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가족이데올로기가 재형성되면서, 신·구의 가족가치관의 충돌이 돌출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정보화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가족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현상이 독신의 증가이다. 개인의 삶이 집단적인 가족생활에 의하여 통제되고 규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독신은 사적인 자유와 제도적 탈피의 양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하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 박충선(cspark@daegu.ac.kr)

지 않고 혼자 산다는 외형적인 의미이상의 다른 잔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령, 여전히 결혼이 “바람직한 삶의 상태”라는 가족문화 속에서 “홀로 산다”는 의미는 결혼에 대한 잠정적 보류이건 혹은 직접적 거부이건 간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사는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일련의 추세라고 하겠다. 이러한 독신가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독립적인 공간, 경제력,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하나의 가족유형으로써의 독신가구를 전반적인 가족복지정책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변화순 외 2인, 2001)

II. 독신가구의 변화

1. 인구 통계적 변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75년 4.2%에서 1990년 9.0%, 1995년에 12.7%, 그리고 2000년에는 15.5%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독신가구 수를 보면, 1975년에 28만 가구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164만 2천 가구, 2000년 222만 4천 가구로 증가하여 1995년에서 2000년의 5년 동안의 기간에 무려 3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독신가구의 단순한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220만여 가구라는 절대적인 수치이다.

<표 1> 총가구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총일반 가구 (천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평균 가구원수 (명)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1975	6,648	4.2	8.3	12.3	16.1	18.3	40.7	5.0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4	19.6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연령에 따른 독신가구의 변화를 보면, 30세 미만의 젊은 층의 독신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30대, 40대의 독신가구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50대에서 주춤하다가 60대 이후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표2). 성별에 따른 독신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도에 따른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러나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독신가구 보다는 여성독신가구의 비율이 높았지만, 25-3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독신가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25-29세는 36.6%, 30-34세는 32.9%, 35-39세는 39.9%로 다른 연령층과 대조가 된다. 한편,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여성독신가구의 비율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4세는 55.5%, 55-59세는 66.6%,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83.4%로 고 연령층에서의 여성독신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년기에 홀로된 이후 남성보다 재혼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부분적인 이유로 볼 수 있겠다.

여성독신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미혼독신과 기혼독신의 변화가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전체 여성독신가구에서 미혼여성독신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32.2%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29.8%로 감소한 반면, 이혼으로 인한 독신가구형성 비율은 1990년의 6.8%에서 2000년에는 9.7%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사별로 인한 노년기 독신여성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3).

2. 사회구조적 변화

독신가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이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적인 유대관계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때로는 오히려 가족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이와 동시에 물질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에 편리한 가전제품의 개발,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 및 의식산업, 그밖에 가사노동을 편리하게 대행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이송원 외 2001).

<표 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독신가구(1인가구)

단위 : %(명)

지역, 연령	전체			여자비율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전국	100.0 (1,004,339)	100.0 (1,642,406)	100.0 (2,224,433)	58.7	56.7	57.5
15세-	3.6	0.1	0.0	53.0	49.5	45.1
15-24	13.8	14.4	10.9	53.9	51.7	54.7
25-29	20.0	17.1	14.3	29.8	29.0	36.6
30-34	9.9	10.6	10.5	39.5	32.4	32.9
35-39	5.8	7.6	8.2	52.6	35.1	39.9
40-44	4.3	5.4	7.5	53.2	45.0	46.1
45-49	4.1	4.6	5.8	55.3	62.8	49.8
50-54	5.3	4.8	5.3	66.5	95.8	55.5
55-59	7.0	6.4	5.8	79.1	72.5	66.6
60+	26.2	29.2	31.7	87.1	84.6	83.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표 3> 혼인상태별 여성독신가구

연도	단위:%(명)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90	100.0 (589,635)	9.3	51.7	6.8	32.2
1995	100.0 (931,524)	7.9	54.2	7.3	30.5
2000	100.0 (1,279,437)	7.7	52.8	9.7	29.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함으로써, 독신생활의 원심력이 되는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 아닌 독신도 고려하도록 만들었고, 또한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년기 독신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3. 성가치관 및 결혼관의 변화

최근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미혼독신자가 증가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초혼연령이 남성은 29.3세, 여성은 26.5세로, 이는 1930년대 남성이 21.3세, 여성이 15.0세였던 때와 비교하여 크게 높아진 결과이다(표4). 특히 여성은 무려 12세나 높아져서, 여성의 결혼관의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가치관과 결혼관의 변화는 결혼의 당위성을 퇴색시키고, 결혼-독신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여기에 개인 중심적인 가치관이 유교적 가족주의를 압도하면서, 독신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독함보다는 자유로움, 불편함보다는 편리함, 공동체적 집단식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자 하는 독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독신생활을 선호하는 행동이 더 이상 한 개인의 병리적인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졌다(노창숙, 1997 ; 허정부, 1999). 즉 독신은 또 다른 삶의 선택 유형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다.

<표 4> 초혼연령의 변화

연도	1930-40	196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남성	21.3	25.6	26.8	26.5	27.0	27.9	28.4	29.3
여성	15.0	16.8	22.8	23.2	24.1	24.9	25.4	26.5

자료 :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2001

III. 독신의 개념과 유형

1. 독신의 개념

독신이란 일단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생활하는 삶의 형태 이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결혼을 통하여 독신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독신과 결혼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독신을 뜻하는 말로 영어권에서는 'never-married', 'unmarried', 'single', 'celibacy' 혹은 'spinster'로 표현되지만, 각 표현들은 엄격하게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독신에 대한 정의가 단순하지는 않다. 가령 미혼독신자의 경우에는 결혼적령기를 지나고서도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을 지칭한다. 여기서 물론 독신자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도여부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라는 의미는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한다는 입장이다 (Elmer & Riley, 1974; 안병철, 1997). 이에 반하여 법적인 기준 외에 사실적인 혼인관계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Austrom 1984).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동거나 계약결혼의 경우는 독신의 분류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에 의하여 독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되므로, 독신이면서도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독신은 절대적인 독신(자녀가 없이 혼자인 경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독신의 연령의 기준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독신의 분기점을 35세로 보았다(김예순, 1994). 또한 20-40세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남성은 32.5세, 여성은 29.2세를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로 인식한다는 보고도 있다 (조선일보, 1997). 그러나 이러한 연령기준은 대부분 결혼 경험이 없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독신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독신의 경우에는 연령의 기준이 없다.

2. 독신의 유형

독신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적인 혼인여부라고 하겠다. 즉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미혼독신, 이혼독신, 그리고 사별독신으로 나뉜다. 미혼독신은 결혼한 경험이 없는 경우이며, 이혼과 사별은 결혼한 후에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게 된 경우이다. 또한 독신의 지속유지기간을 기준으로 잠정적 독신과 영구적 독신으로 구분하고, 독신생활에 대한 선택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발적 독신과 비자발적 독신으로 나눌 수 있다. 독신의 지속기간과 선택성의 두 요인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Stein, 1978). 자발적/잠정적 독신은 현재 미혼이기는 하나, 학업이나 직업이 안정된 후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 자발적/영구적 독신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독신생활을 선호하며 일생동안 독신생활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써 성직자이거나 혹은 이혼이나 사별에 의하여 독신이 된 사람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비자발적/잠정적 독신은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 적당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비자발적/영구적 독신은 결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배우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

적령기를 넘겼거나 결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놓여서 독신 생활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배우자선택 과정에서 어려운 경우나 혹은 노년기 혼자됨으로써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홀로된 노인의 경우가 많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수집

독신의 실태는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결혼경험 여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의 범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독신생활의 기초적 실태와 특성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대상자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성과 여성으로 자신이 스스로 가계를 유지하고 공간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미혼이거나 결혼경험(이혼 혹은 사별)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snowball 방식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편중을 막고자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통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60사례를 수집하였다.

2. 측정도구

6명의 공동연구자가 독신가구의 일반적 속성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심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가족관계, 주거, 그리고 시간 및 여가 등의 7가지 영역을 6인의 연구자가 전문분야에 따라 분담하여 전체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의 타당도는 독신가구의 공동연구진에 의하여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그 중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영역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신의 이유 및 결혼 가능성,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기초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test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서는 SPSS for Window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성 78명(48.8%), 여성82명(51.3%)으로 여성이 다소 많았다. 평균연령은 35.0세이며, 남성이 33.0세, 여성이 36.8세로 여성독신의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9.4%가 35세 미만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젊은 독신층이 많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중 148명(92.5%)이 미혼 독신 이었고, 9명(5.6%)이 이혼, 그리고 3명(1.9%)이 사별한 경우였다. 전체 응답자의 50.6%가 "종교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개신교(26.3%), 카톨릭(16.3%), 그리고 불교(5.6%)의 순 이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60)

	변 수	빈 도	%
성 별	남	78	48.8
	여	82	51.2
연 령	30-34	95	59.4
	35-39	28	17.5
	40-44	30	18.7
	45세 이상	7	4.4
학 력	고졸이하	12	7.5
	대졸	99	61.9
	대학원이상	49	30.6
결혼여부	미혼	148	92.5
	사별	3	1.9
	이혼	9	5.6
종 교	없다	79	49.4
	개신교	42	26.2
	불교	9	5.7
	카톨릭	26	16.2
	기타	4	2.5
	직 업	전문직/관리직	50
사무직		42	26.2
자영업		7	4.4
기술직		14	8.7
판매·서비스직		10	6.3
무직		13	8.1
기타		24	15.0
소 득	100만원 미만	33	20.8
	100-150만원 미만	31	19.5
	150-200만원 미만	49	30.8
	200-250만원 미만	21	13.2
	250-300만원 미만	15	9.4
300만원 이상	10	6.3	

학력은 전체 응답자의 92.5%가 대학교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 층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원 졸업의 집단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학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50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이 42명(26.2%)으로 그 다음 순 이었다. 성별에 따른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의 전문직 종사 비율(39.8%)이 남성(19.8%)의 2배에 달하였다. 또한 30대와 40대 전국 취업여성중에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불과 0.02%인 것을 감안

하면 매우 높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그밖에 기술직에는 남성이, 자영업 직종에는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50-200만원 미만이 49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33명(20.8%), 그리고 100-150만원 미만이 31명(19.5%), 200-250만원 미만이 21명(12.8%), 그리고 250-300만원 미만이 15명(9.4%)로 나타났다. 한편,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의 경우도 10명(6.3%)이 포함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고소득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2.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52.4%)보다 남성(56.6%)이 더 높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업이나 일(직업)에 몰두하느라고'라는 응답이 21.0%, '결혼의 중압감/책임감때문'이라는 응답이 7.6%, 그리고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였다. 또한 '이성 및 결혼에 대한 불신'을 지적한 비율(2.5%)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모두 여성독신으로 남성에 대한 실망감과 결혼에 대한 불신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환경이 독신에게 편리해졌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한다는 비율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다.

<표 6> 성별에 따른 독신이유

독신이유	빈도 (%)		
	전체	남자	여자
독신주의자이므로	8(5.1)	5(6.6)	3(3.7)
이성/결혼에 대한 불신	4(2.5)	.	4(4.9)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86(54.4)	43(56.6)	43(52.4)
가족부양	2(1.3)	1(1.3)	1(1.2)
학업이나 일(직업)	33(20.9)	16(21.1)	17(20.7)
편리한 사회환경	4(2.5)	1(1.3)	3(3.7)
결혼의 중압감/책임감	12(7.6)	5(6.6)	7(8.5)
기타	9(5.7)	5(6.6)	4(4.9)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를 토대로 독신 유형을 분류해 보면, 비자발적/잠정적 유형이 가장 많았고(54.4%), 자발적/잠정적 유형이 20.9%, 그리고 자발적/영구적 독신이 11.7%, 비자발적/영구적 독신이 1.3%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현재는 독신으로 지내지만, 적당한 배우자감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독신이 곧 결혼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는 잠재적 기간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자발적/잠정적 독신은 결혼보다는 독신의 보상효과를 누리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결혼의 보상이 매우 높거나 독신의 비용효과가 매우 높지 않는 한 독신으로 남게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밖에 자발적/영구적 독신과 비자발적/영구적 독

신은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독신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3. 결혼희망도

독신 응답자들이 결혼을 어느 정도 희망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적당한 대상이 나타난다면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여 결혼에 대한 잠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태도가 더욱 유동적이었다(표7). 또한 '언젠가 반드시한다'는 응답은 18.3%였으며, 여성(4.8%)보다남성(32.5%)의 응답이 훨씬 더 높았다.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11.6%로, 남성(7.5%)보다 여성(15.7%)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은 결혼을 전제로 한 독신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은 적당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거나 결혼 자체를 배제한 독신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희망도

배경변수	빈도(%)			χ^2
	전혀없다	유동적이다	반드시 한다	
성별	남 6 (7.8)	46(59.7)	25(32.5)	29.90***
여	13(15.9)	65(79.3)	4 (4.9)	
교육	고졸 3(15.8)	9 (8.1)	.	14.42**
대졸	5(26.3)	72(64.9)	22(75.9)	
대학원 이상	11(57.9)	30(27.0)	7(24.1)	
소득	100만원 미만 4(21.1)	25(22.5)	4(14.3)	26.02**
100-150만원 미만	4(21.1)	23(20.7)	4(14.3)	
150-200만원 미만	3(15.8)	32(28.8)	14(50.0)	
200-250만원 미만	1 (5.3)	18(16.2)	2 (7.1)	
250-300만원 미만	2(10.5)	11 (9.9)	1 (3.6)	
300만원 이상	5(26.3)	2 (1.8)	3(10.7)	

*p<.05 **p<.01 ***p<.001

결혼희망도는 연령과는 관계없었으나, 교육정도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고학력 층일수록 독신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결혼가능성과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은 '언젠가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하여 소득이 독신의 잠정적 요소를 결정짓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와 결혼희망도의 관계를 보면, '독신주의자'라고 한 응답자들의 결혼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는 잠정적 독신의 결혼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이나 일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결혼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입장과 반드시 결혼하겠다는 두 가지 입장의 양극적 반응을 보였다.

4. 독신에 대한 인식

1) 전반적 인식

결혼생활을 통한 비용과 보상이 있듯이, 독신생활에 따르는 비용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Becker, 1981). 독신자들은 스스로의 독신생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이러한 인식은 비용과 보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독신생활은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거나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거나, 자신만의 공간, 자신의 일에 대한 몰두, 자기 개발, 그리고 생활의 융통성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보상효과이다. 이에 반하여 외로움, 단절감 등의 정서적 불안감, 건강적 불안(몸이 아프거나 위급 상황), 경제적 불안,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등은 독신생활의 비용측면이라고 하겠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독신의 자유로움, 공간적 독립성, 자신만의 일에 몰두 등에는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제도적인 압력, 노후생활 불안감 등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표 8> 독신에 대한 전반적 인식

문항	빈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결정을 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서 좋다.	25(15.4)	105(64.8)	31(19.1)	1(0.6)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없어서 좋다.	24(14.6)	82(50.0)	47(28.7)	11(6.7)
가고 싶은 곳은 언제 어디로든 갈 수 있어서 좋다.	36(22.0)	97(59.1)	28(17.1)	3(1.8)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좋다.	50(30.7)	94(57.7)	14(8.6)	5(3.1)
내가 하는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49(29.9)	94(57.3)	18(11.0)	3(1.8)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다.	37(22.6)	92(56.1)	30(18.3)	5(3.0)
생활의 변화나 융통성이 많아서 좋다.	27(16.5)	99(60.4)	34(20.7)	4(2.4)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의 결혼하라는 압력이 힘들다.	21(12.8)	44(26.8)	76(46.3)	23(14.0)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24(14.6)	55(33.5)	71(43.3)	14(8.5)
현재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다.	11(6.7)	43(26.2)	88(53.7)	22(13.4)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10(6.2)	59(36.4)	76(46.9)	17(10.5)
명절이나 휴일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16(9.8)	24(14.7)	90(55.2)	33(20.2)
사회에서 성인(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	9(5.5)	22(13.4)	90(54.9)	43(26.2)

2) 독신생활의 자유로움

독신생활은 자유가 가장 특징이라고 하겠다. 독신생활의 자유로움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면, 성별이나 연령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교육정도와 소득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표 9). 교육정도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독신생활의 자유로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9>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독신생활의 자유로움 빈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	고졸이하	.	1(2.9)	1(3.8)
	대졸	.	21(61.8)	21(80.8)
	대학원이상	3(100.0)	12(35.3)	4(15.4)
소득	저	1(33.3)	20(58.8)	8(30.8)
	중	.	9(26.5)	11(42.3)
	고	2(66.7)	5(14.7)	7(26.9)

3)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독신으로 지내면 자신의 일과 직업에 몰두할 수 있어서 자아성취감이 높다는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10). 이러한 인식은 남성독신보다 여성독신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독신의 보상이 여성에게는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자아성취감에 인식이 높아서 독신이 주는 보상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자아성취

사회인구학적변인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2(66.7)	11(68.8)	15(31.9)
	여	1(33.3)	5(31.3)	32(68.1)
교육	고졸이하	.	1(6.3)	6(12.8)
	대졸	.	12(75.0)	22(46.8)
	대학원이상	3(100.0)	3(18.8)	19(40.4)

4) 여가 및 자기개발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문항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표 11). 즉 이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는 응답이 남성은 70.5%인 반면, 여성은 87.8%로 여성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신생활이 자아성취감과 더불어 여성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1> 성별에 따른 여가 및 자기개발

성별	빈도(%)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1(33.3)	22(73.3)	43(47.3)	12(33.3)	11.05*
여	2(66.7)	8(26.7)	48(52.7)	24(66.7)	

* p<.05

5) 제도적 압박감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데에서 오는 사회적 압박감에 대한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였다(표 12). 과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으로부터의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들의 결혼 혹은 독신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남성들은 여전히 부계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독신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표 12> 성별에 따른 제도적 압박감

		빈도(%)				χ^2
성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남	7(31.8)	34(44.7)	29(69.0)	8(40.0)	10.55*	
여	15(68.2)	42(55.3)	13(31.0)	12(60.0)		

*p<.05

6) 지원체계의 불안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은 응답자의 소득과 관계가 있었다. 즉 건강상 불안감이나 경제적 불안감은 소득이 낮은 독신집단에서 더욱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31.4%가 자신의 소득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그저 그렇다'(46.5%), 그리고 '부족하다'(22.0%)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독신들의 경제상태가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다(표 13).

<표 13> 소득에 따른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 : 건강과 경제적 측면

		빈도(%)				χ^2
소득	건강	전혀없다	없다	있다	매우있다	
소득	저	3(25.0)	35(50.7)	22(40.0)	4(17.4)	20.48**
	중	3(25.0)	26(37.7)	25(45.5)	16(69.6)	
	고	6(50.0)	8(11.6)	8(14.5)	3(13.0)	
		빈도(%)				χ^2
소득	경제	전혀없다	없다	있다	매우있다	
소득	저	5(25.0)	27(31.0)	25(59.5)	7(70.0)	33.71***
	중	5(25.0)	48(55.2)	15(35.7)	2(20.0)	
	고	10(50.0)	12(13.8)	2(4.8)	1(10.0)	

*p<.01 ***p<.001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인식정도는 성별, 연령, 그리고 소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14). 이는 한국사회의 복지 지원체계가 여전히 가족

중 심적이며, '선 가족 후 사회'라는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의 기반이 없는 독신들이 안고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노후복지는 여성독신은 평균수명은 높고, 연금이나 기타 복지지원은 미비한 상태에서 홀로 자신을 보호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및 정책은 남성 중심적이므로 여성독신은 여성과 독신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표 14>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빈도(%)				χ^2
사회인구학적 변인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성별	남	9(60.0)	45(60.8)	21(35.6)	2(20.0)	12.46**
	여	6(40.0)	29(39.2)	38(64.4)	8(80.0)	
연령	30-34	7(46.7)	50(67.6)	34(57.6)	2(20.0)	23.32**
	35-39	.	11(14.9)	12(20.3)	5(50.0)	
	40-44	6(40.0)	12(16.2)	9(15.3)	3(30.0)	
	45+	2(13.3)	1(1.4)	4(6.8)	.	
	저	6(40.0)	25(34.2)	28(47.5)	4(40.0)	
소득	중	3(20.0)	37(50.7)	26(44.1)	3(30.0)	13.37*
	고	6(40.0)	11(15.1)	5(8.5)	3(30.0)	

*p<.05 **p<.01 ***p<.001

7) 독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

독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독신여성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간 것이다'라는 응답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91.0%)라고 하였다. 또한 '독신 남성은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에는 '그렇지 않다'(66.1%)로 나타났다. 즉 독신여성은 비자발적, 그리고 남성은 자발적이라는 고정 관념적인 사회적 인식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여성독신과 남성독신의 사회적 수용도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독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불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독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

		빈도(%)	
문항	그렇다	그렇지 않다	
독신여성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간 것이다.	14 (9.0)	142(91.0)	
독신남성은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52(34.0)	101(66.1)	
우리 사회에서는 독신여성보다 독신남성을 더 수용한다.	68(42.6)	92(57.6)	

5.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으로 독신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가 50.0%, '보통이다'가 38.8%, 그리고 '불만이다'는 11.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62.5%)이 남성(37.5%)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룩 독신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독신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회인구학적변인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χ^2
성별	남	30(37.5)	36(58.1)	8.52*
	여	50(62.5)	26(41.9)	
연령	30-34	37(46.3)	46(74.2)	18.61**
	35-39	14(17.5)	10(16.1)	
	40+	29(36.3)	6(9.7)	
교육	고졸이하	9(11.3)	2(3.2)	5.31
	대졸	44(55.0)	44(71.0)	
	대학원이상	27(33.8)	16(25.8)	
소득	저	32(40.0)	25(41.0)	10.34*
	중	29(36.3)	33(54.1)	
	고	19(23.8)	3(4.9)	

*p<.05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서, 독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신에 대한 인식실태와 현재 자신의 독신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독신에 대한 인식실태는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생활의 자유로움,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여가 및 자기개발, 제도적 압박감, 지원체계의 불안감, 독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 등이다. 먼저 독신생활의 자유로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서 볼 수 있었다. 즉 독신의 특권인 자유추구는 '편의주의'와 '인생을 즐긴다'라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 부응되는 삶의 형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그리고 여가 및 자기개발기회가 증가한다는 인식은 독신자의 성별과 높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남성보다는 여성집단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독신이 여성에게 주는 보상효과와 결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비용효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여성에게는 자생력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his marriage and her marriage"의 결혼제도의 이중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에 대한 주변의 압력도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신남성은 결혼에 대하여 "언젠가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독신생활을 지속하는 반면, 독신여성은 결혼이란 "언젠가 할 수도 있다"라는 보다 여유 있고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보이면서, 독신의 자연스러운 생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결혼에 대한 유동적인 사고방식의 여부가 성별에 따른 제도적 압박감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가령, "독신은 불효"라는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전통적인 혈연위주의 가족주의 가치관 개념을 지님으로써, 가문이나 혈통을 잇는 기능을 가진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독신은 남성에게 비용효과의 증가, 여성에게는 편익의 증가를 가져다 주고, 결혼은 남성에게는 비용효과의 감소, 여성에게는 편익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지원체계의 불안감은 건강, 경제, 그리고 노후생활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이러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 연령층의 소득이 낮은 독신 여성의 경우에는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높아서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에 대하여서는 외부적 개입을 통한 복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독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도 과거보다 상당히 사라졌다. 특히 독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졌으며, 독신여성도 독신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이란 삶이 이제는 남성이나 여성에게 모두 대안적인 삶으로 평등하게 다가왔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성평등적인 인식은 앞으로 독신이 결혼제도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독신생활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5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독신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독신생활을 선호하며, 결혼적령기를 넘겼거나 결혼경험이 있었던 기혼독신의 경우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의 만족도 높게 나타나서 독신생활에서 3가지 "자"인 자유로움, 자급자족, 그리고 자신감이 독신의 필요충분조건임을 보여주었다.

독신이 반드시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 또한 단지 우리사회의 오래된 하나의 제도일 뿐,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정보화사회에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신이 새로운 삶의 선택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독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간에 독신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독신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독신의 성·연령·교육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욕구가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고 연령층의 여성독신 가구의 빈곤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누구나 인생주기의 한 시점에서는 독신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독신생활의 기간이 점차적으로 장기화되면서, 미혼독신 뿐만 아니라 기혼독신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점차적으로 독신이란 생활양식이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이제 독신은 과거와 같은 특정집단이나 특정 연령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의 보편적 논리 속에서 독신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접수일 : 2002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 2002년 12월 12일

【참 고 문 헌】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서울 : 고려원미디어.
 노창숙(1997). 독신이 아니라 독립이다. 서울 : 새얏.
 변화순 · 송다영 · 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0.
 손주희(1996). 혼자 살면 뭐가 좋은데. 서울:책세상
 안병철(1997). 사회변동과 가족. 서울:미래인력연구센터 출판부.
 윤형효(1994). 시집안간여자 시집못간 여자. 서울:삼진기획

이미영(1994). 독신이 대안은 아니다. *길*, 2월호, 84-87
 주간조선(2002). 나홀로가 좋다: 싱글가구 200만 돌파. *주간조선 통권 1686호*. 70-72.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_____, 인구통계연보.
 허장무(1999). 미혼독신주의와 노부모세대. 서울:협신사.
 Anderson, C.(1984). *Flying Solo: Single Woman in Midlife*. N.Y.: Norton Co.
 Austrom, D.(1984), *Consequences of Being Single*.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Becker, G(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ckrum, J & P. White(1985). Influenc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never-married Men and Women. *Family relations*, 34(October), 25-32.
 Gubrium, J. F.(1975). Being single I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 29-41.
 Scott, J.(1979). Single rural elders: A comparison of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 *Alternative Lifestyles*, 2(August), 359-378.
 Stein, P. J.(1978). The lifestyles and life chances of the never-marrie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 1-11.
 Spreitzer, R. & L. Riley(1974), Factors associated with single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August), 533-542.